트럼프 "내달 對中 100% 추가 관세"…희토류 통제 맞불

'관세인상 검토' 발언 6시간 만에 고율관세 발표…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같은날 개시"…APEC계기 미중정상회담 무산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로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이후 고위급 협상을 이어오며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무역과 관련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됐다"며 이 같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평균 55% 수준으로, 여기에 100%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은 평균 155%의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2025년 11월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이는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전례 없는 조치를 한 사실을 근거로, 비슷하게 위협받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만을 대표해, 2025년 11월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1일, 우리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captive)로 잡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순간 검토하는 정책 중 하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말한 뒤 약 6시간 만에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하면서 추후 중국의 후속 입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두 정상의 APEC 계기 만남이 불발되는 것은 물론 양국 관계가 첨예한 갈등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중 '관세전쟁' 재발 우려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82포인트(-1.90%) 하락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2.60포인트(-2.71%)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820.20포인트(-3.56%) 떨어졌다. /연합뉴스

'노벨평화상 수상' 마차도 "맙소사…우리는 승리할 것"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여성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0일(현지시간)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위해 앞으로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차도는 이날 노벨위원회와의 통화를 통해 "아직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를 얻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자신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독재 정권에 맞서고 민주주의 투쟁을 함께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모두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차도는 한밤중에 노벨위원회의 전화를 받은 뒤 "맙소사,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것(노벨평화상)은 우리 국민에 대한 가장 큰 인정"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라며 "절대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20년간 베네수엘라 민주화 투쟁을 이끌며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차도는 야권 운동가 대다수가 모두 신변의 위협을 느껴 해외로 피신했음에도 아직 베네수엘라에 머물고 있다.

노벨위원회도 마차도가 현재 베네수엘라 내에 거주 중이라고 밝히며 수상 발표 직전 마차도와 통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도쿄에 윤동주 기념비 세워졌다

"정의의 시로 역사 배우길"

윤동주의 도쿄 모교인 릿쿄대 교정에 지난 11일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도시샤대와 교토 시내에는 윤동주 시비(詩碑)가 있지만, 도쿄에 윤동주 관련 비석이 건립된 것은 최초로 알려졌다.

릿쿄대 서쪽 14호관 인근에 설립된 기념비에는 윤동주 사진, 윤동주의 릿쿄대 생활을 설명한 짧은 글, 쉽게 씌어진 시와 일본어 번역본이 실렸다. 〈사진〉

윤동주는 릿쿄대 재학 중에 순수하고 서정적인 시를 썼고, 백합 문양이 인쇄된 릿쿄대 편지지에 적은 시 5편의 원본이 연세대 윤동주기념관에 보존돼 있다.

행사를 집전한 사제는 "태평양전쟁 패전으로부터 80년을 맞이한 이때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특히 시인 윤동주를 마음에 새긴다"며 "그가 남긴 정의의 시를 통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깊은 반성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연합뉴스

개구리·공룡복장으로 트럼프 조롱하는 美 시위대

이민정책 맞서는 포틀랜드 시위대

'알록달록' 의상으로 헛웃음 자아내

포틀랜드에서 개구리 복장으로 ICE 요원과 대치 중인 한 시위자. /REUTERS=연합뉴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동물군단'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의 평화로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우스꽝스러운 동물 의상을 집회 장비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포틀랜드의 시위자들이 개구리, 유니콘, 너구리, 상어, 곰, 공룡, 카피바라 등의 코스튬을 착용하면서 시위 현장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알록달록한 복장의 동물 군단 시위자들의 모습은 시위 진압장비와 방탄복으로 중무장한 ICE 요원 등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근엄한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에서는 포틀랜드의 극단주의 시위자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일부 시위대가 과격 행위로 체포된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헛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유머러스한 시위대의 모습이 인터넷 밈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면서 우파 진영이 주장하는 '폭력 좌파' 등의 낙인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청률이 높은 심야 토크쇼 주제 등으로 등장하면서 시위 현장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성조기 망토를 두른 닭 의상으로 시위에 참여한 한 20대 시위자는 자신의 복장에 대해 "우리를 쫓아다니는 쪽을 더 바보같이 보이게 해준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이런 시위 방식은 한 청년의 결심에서 시작됐다.

6월 초 ICE 청사 앞에 초록색 개구리 복장을 나타난 세스 토드(24)의 모습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지역의 유행으로 확산했다고 한다.

토드는 개구리 옷을 입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NYT에 "우리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라는 주장에 맞서려던 것"이라며 "그 최선의 방법이 나한테는 개구리 복장을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위 주최 측도 동물 복장을 기부받는 등 더 의도적인 운동으로 동물 복장 시위를 확신시키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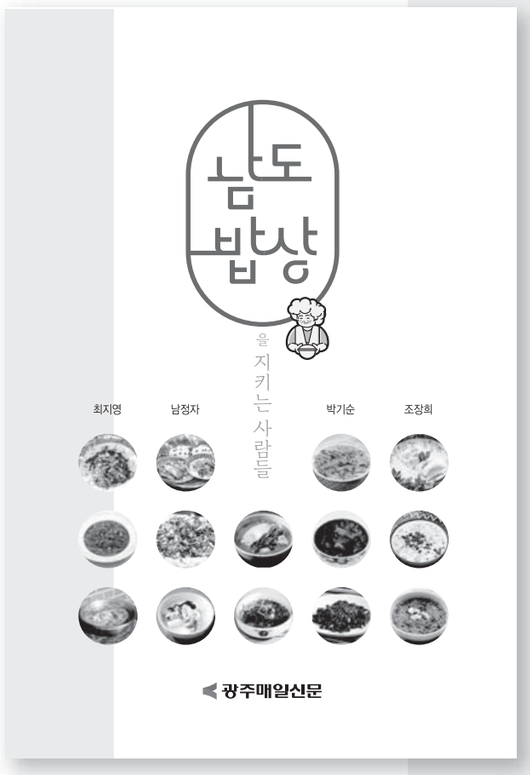
포틀랜드는 이전에도 다소 독특한 시위 방식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ICE 청사 앞에서 ICE 요원들에게 비눗방울을 불거나, 시위 중 느닷없이 단체 댄스 플래시몹을 진행하기도 했다. 낚싯대에 도넛 같은 빵을 달아 허기진 ICE 요원을 유혹하는 이른바 '얼음(ICE) 낚시 시위'도 화제였다.

12일에는 ICE 시설 앞을 자전거로, 그것도 누드 상태로 질주하는 시위가 기획 중이라고 한다.

정치 서사와 상징성을 연구해온 휘트니 필립스 오리건대 교수는 "장면의 대비가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것 같다"며 "지금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시기지만, 우스꽝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 : 예금주 -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